

The Satir Journal, Volume 1 Number 2
ISSN - (print) 1718-2050
ISSN – (online) 1718-2069

An Analysis of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in the Korean Worldview

在韓國文化中分析沙維雅轉化式系統治療模式

한국인의 세계관에 의거한 사티어 모델에 대한 분석

Young Ae Kim, Ph.D.
Korea Satir Institute,
Director

Abstract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STST) has been enthusiastically welcomed in Korea since the training program was first introduced approximately five years ago and adopted into the graduate program of social welfare. The enthusiasm arises from the model's clarity, inclusiveness, integration and its transformational power. This study will compare the basic worldview of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with the traditional Korean worldview, with a focus on similarities in approaches to mental health.

Koreans' archaic worldview is called "Han," which means holistic, systemic, complementary, and spiritually centered. In this view, all existence is spiritually interconnected, each is of equal value and there is no concept of dualism. Furthermore, the world is in a constant process of change. However, Korea's archaic worldview became overshadowed by Confucianism, with its base in patriarchy and its tendency to have people grasp for power over others. As a result, the life of Koreans has become contrary to its former worldview, and this has created deep pain, particularly for those who are located lower in the hierarchy. Overemphasis on this patriarchic worldview seems to contribute to dysfunctional symptoms such as dependency, being outside-focused, victimizing oneself, a shame-based false self, family-based self-centeredness, etc.

Virginia Satir strongly disagreed with the Western dualistic worldview and was adamant in her stance that people have equal value. Satir always regarded every person as an authentic being, equipped with resources to fully realize themselves and sharing the same life force. This study prepares the discussion of the application and benefits of Satir's therapy model in Korea by first comparing it with the Korean "Han" worldview and its traditional healing methodology.

沙維雅轉化式的系統治療模式在五年前引入韓國之後，大受歡迎，並已成為社會福利課程的一個科目。這麼受歡迎的原因源自模式本身的一些特性，例如：清晰性、包容性、整合性、以及她的轉化力量。本文重點比較沙維雅轉化式系統治療模式的特點和韓國文化的

世界觀，特別是在對精神健康的看法方面。在韓國，精神健康觀念主要與“韓”有關，特指以靈性為中心的，一種整全、系統、和互補的觀點。從這個角度看，所有的個體在靈性層面是相互連接和平等的，不存在二元論的概念，世界也被看成是不斷變化的。但是，這些古老的觀點受到孔子儒家思想的影响，例如強調分權、傾向於鼓勵個體壓倒別人而獲得權力。結果韓國人就生活在矛盾中，也造就了深層的痛苦，特別是那些處於社會底層的人。過份強調等級分明會造成一些病態特徵，例如依賴、關注外在、自我犧牲、一種以羞恥感為中心的錯誤的自我概念、家庭中心主義等。沙維雅強烈反對二元論的世界觀，堅定地強調人的平等性，她認為每一個人都是一個信實的個體，有內在的資源來實現潛能，人類享有共同的生命能量。透過與韓國文化下以“韓”為中心的世界觀和傳統心理治療方法的比較，本文討論了沙維雅模式在韓國文化下的運用和好處。

요약

사티어 모델(STST)이 한국사티어연구소를 통해 5년 전에 처음 한국에 소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환영하였는데, 이는 사티어 모델의 명료함, 통합성, 그리고 경험을 통해 사람을 변형시키는 힘에 대료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사티어 모델의 세계관과 한국인의 원초적 집단 무의식적 세계관을 비교 연구하고 치유방법론 접근에 있어서의 유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인의 원초적 집단 무의식적 세계관은 “한”(하나)으로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서로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보완적이며, 전체적으로 하나를 이루며, 부분과 전체는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본다. 또한 이 세계관에서는 모든 존재는 같은 생명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서구의 이분법적 관점을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관은 유교에 의해, 그리고 힘을 갖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인하여 가부장적 체계로 변화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원초적 집단 무의식적 존재양식과는 대치되는 삶을 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깊은 고통 “한”(위의 한과 다른 의미)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변질된 가부장적 세계관은 의존성, 외부중심주의, 체면주의, 피해의식, 수치심에 의한 가짜 자기 형성,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자기중심주의 등의 역기능적 특성을 한국인들의 성격의 일부로 형성하게 되었다.

버지니아 사티어도 인간의 위치를 지배종속관계로 만드는 서구의 이분법적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사티어는 모든 사람은 그만의 독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자신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똑 같은 생명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이 연구는 사티어 모델을 한국사회에 적용하는데 앞서 한국인의 “한”(하나)의 세계관과 전통적 치유방법론을 사티어 모델과 비교 토론하고자 한다.

(To purchase the Full Article, see "Individual Articles" at the SIP store)